

2017 신년 인터뷰

윤장현 광주시장

“車·에너지·문화 등 미래 먹거리 육성 전력”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광주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미래산업으로 바꾸고 미래먹거리 산업 조성을 통해 광주 시민들이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광주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난해 기틀을 만들어 놓은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에 전력을 쏟아 양질의 청년일자리 공급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시장은 또 우리 사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권과 자치, 양극화 해결, 공동 가치를 통한 국민통합을 꼽았다.

다음은 윤 시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시정의 최우선 핵심 과제는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 빛그린 산단 일원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부품기업을 위한 장비구축과 기술개발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산단으로 본격 개발하겠다. 최근 착공한 남구 대촌동 일원의 도시첨단 국가산단에 이어 지방산단도 새해에 착공하도록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를 서둘러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이전이 가시화되도록 하겠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한 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의 흐름을 광주가 주도 하겠다.

송암산단 일원의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와 문화전당의 코리아 콘텐츠 랩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광주의 산업구조를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은 있나?”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는 물론이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사회혁신운동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금호타이어 노사와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등 첫 단추를 꿴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광주시 최초로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운영, 사회적 대화 테이블 운영, 적용 사업장 발굴 및 희망 사업장 컨설팅, 원형정 관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사회협약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행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이롱 등 해외 자동차 메이커의 유치 진행상황과 계획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국책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부품 및 완성차 기업 유치를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협약을 한 조이롱자동차는 한국 법인설립 뒤 내



양질의 ‘광주형 일자리’ 공급 주력

분권과 자치·양극화 해결 급선무

프린지페스티벌 매주 토요일 개최

“광주정신 미래화·보편화해야”

년 상반기 목표로 국내 인종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조이롱 자동차의 왕릉과 사장이 광주를 방문해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투자지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국내 자동차 인종 통과시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중국에 간다. 칭화포럼에서 맺어 진 인연을 이어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 큰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이 확인 되고,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인도 마힌드라그룹 방문 후속 조치로 전기자동차 분야 협력을 위한 제안서를 송부했다. 현재 마힌드라 그룹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서 반응을 살펴본 뒤 마힌드라 그룹과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낼 계획이다.

“코리아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문화전당은 광주의 자산이며 경쟁력이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처럼 금남로 프린지페스티벌 만들어 한 달에 두 차례 열었으며 많은 문화단체가 함께 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열겠다. 문화전당과 함께 인터내셔널 프린지페스티벌을 열고 중국 광장무(廣場舞)도 공연할 계획이다. 대인별장아시장과 양림동 역사 문화 마을, 남광주 밤기차야시장, 동명동 카페 거리, 푸른 길 활성화 등 문화전당 권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올해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광주이 핫플레이스를 찾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전당 주변을 너무 경건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년들에게 자유와 낭만을 만끽하도록 하고, 대신 부모 세대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와 낭만인 것을 잊지 말도록 해야 한다.

“올해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는데, 자치 협치와 소통에 초점을 두면 좌고우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자치부진하거나 결론이 늦다고 하는 일들이 사실 최초 기획 단계부터 잘 정리가 됐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정이나 대중 정치는 시민들과 눈높이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업·협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촛불 민심은 권력의 구조 문제, 부정부패 문제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시민, 국민의 쌍방통행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앞선 지적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가겠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 정치적 입지는?”

▶“투가지 논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저를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한 도의가 있다. 정치의 유희리를 따져서 가는 것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다. 또 하나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정치 논리에 빠져 있는 지역을 실질적인 행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그려보겠다는 이유로 정치를 시작했다. 제가 광주시장에 나섰던 것은 모든 것이 정치 논리 하나만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광주의 미래, 민생을 챙기는데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가 그려가야 할 미래 비전은.

▶“광주정신이 과거 완요형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시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함께 하는 도시, 지역의 어려움을 끌어안는 도시가 광주정신을 미래화, 보편화 하는 일이다. 광주는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광주정신은 피값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조그마한 소리도 못내고 숨죽여 사는 게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 이야기 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창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 더욱 광주가 젊어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모여져 광주가 1년만에 창업도시로 우뚝 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민주묘지 참배하고 떡국 봉사활동

광주시·전남도 각 기관 사무식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각각 참배 일정과 사무식을 통해 새해 화두를 던졌다.

윤 시장은 2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 5개 구청장,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과 함께 독립운동 기념탑, 현충탑,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시장은 5·18 묘지 방명록에 “시민주권 혁명 완결하여 광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광주시는 매년 해오던 사무식을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신년인사회를 한 뒤 각 부서별로 전동시장, 건설현장, 장애인 보호시설 등 민생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사무식에서 ‘수저작주’(處處作主·어디서나 주인이 됨)를 새해 화두로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일에 공직자들이 주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들이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건 주변 약자를 위한 사책을 더 세밀하게 발굴하고 정책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도민을 한 분이라도 줄이도록 온

정의 사책을 펼치는 일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완도군은 이날 오전 해조류센터 광장에서 2017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사무식을 했다. 박람회 성공 기원 결의문 낭독에 이어 2017년 풍선을 하늘에 띄우며 성공 개최 의지를 다졌다.

강진군은 군청 광장에서 강진 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사무식을 열었다. 닭의 해를 기념해 군민대표가 강진원 군수에게 황금알을 전달하는 퍼포먼스, 소망등 달기 등 행사가 이어졌다.

장성군 주요 간부들은 이날 사무식을 마치고 장성군 향룡면에 있는 박수량 백비(白碑)를 참배했다. 무안군도 사무식 중 청령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령강의로 새해 시작을 알렸다. 함평군은 군청 현관에 설치된 게시판에 ‘떡단 나누기’로 희망을 나눴다. 광주시 남구는 사무식 뒤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에서 떡국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광산구 공직자들도 사무식을 마치고 지역 복지관을 다녀 찾았으며 광주 북구 공직자들은 아예 사무식 없이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담양 조용익·화순 김경호·장흥 위삼섭·해남 유영걸

강진 안병옥·영암 황인섭·함평 조태용·신안 오재선

전남도 8개군 부군수 전보 인사

전남도는 8개 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전남도가 2일 발표한 부단체장 인사안에 따르면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조용익의 전대변인은 담양, 김경호 전 총무과장은 화순, 위삼섭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은 장흥으로 발령됐다.

박철환 군수가 직권남용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 정지중인 해남군 부군수는 유영걸 도 회계과장이 맡게

됐다.

안병옥 기업도시담당관은 강진, 황인섭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영암, 조태용 자연재난과장은 함평, 오재선 대변인은 신안 부군수 발령을 받았다.

3년 이상 과장급 경력자 중 실·과장을 추천해 해당 지역 군수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선발됐다.

전남도는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조속히 하고 5급 이하 인사도 별도 인사예고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숲속의 전남 만들기’ 1월의 나무에 먼나무 선정

전남도는 2일 “겨울에 아름다운 붉은 열매로 사랑을 받는 먼나무를 2017년 1월의 나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나무는 전남지역 보길도 등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난대수종으로 바닷가 숲에서 자라는 감탕나무과의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다. 높이 10m까지 자라는 큰키 나무로 꽃은 빠르면 5월부터 피기 시작해 6월까지 볼 수 있으나 꽃 색도 연하고 크기도 작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꽃이 피었는지 알 수 없다.

늘푸른 나무지만 지역에 따라 어느 순간 잎을 모두 떨구었다가 다시 새로운 잎을 내는 경우도 있다. 추위에 약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만 생육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과 염분에는 강하다.

먼나무의 매력은 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총총히 뒤덮는 붉은 열매다. 붉은색의 열매가 수북이 달려 있어 나무 전체가 마치 붉은 꽃이 핀 것같이 아름답고 이 열매는 다음해 5~6월까지 빨간 상태로 달려 있어 불거리를 제공하며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 역할도 한다. 전남도내에는 상록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다. 나무 껍질은 구름을 이라 해 한방에서 해독과 해열 등의 약재로 독버섯이나 약물, 농약 중독 등의 해독과 감기, 몸살 등의 해열제로 널리 사용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myung 21 Hospital (대영21병원) featuring a concert by Park Moon-kyung (박문경) and the Chamber Orchestra. Includes hospit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angyeon Green Hospital (자연그린한방병원) focusing on natural medicine and health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